

한강.jpg

강이 자리에 앉는다. 카메라 세례가 연이어 터진다. 플래시 소리가 따끔거린다. 테이블엔 노트북과 투명한 유리컵이 놓여 있다. 사분의 삼 정도 물이 채워진 채로. 마우스를 살짝 만지는 강의 오른손이 유리컵에 비쳐 불룩하게 보인다. 포토타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녀는 일어서서 자세를 취한다. 치쿰치쿰. 플래시 소리가 둔탁하다. 강은 오른팔을 거의 직각으로 접어 왼팔에 댄다. 작가 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포즈다. “왼쪽이요.” “오른쪽 아래도 봐주세요.” “손을 좀 올려주세요.” 기자들의 주문이 쏟아진다. 강은 『훤』¹이라는 자신의 새 작품 이름이 적힌 현수막에 살짝 기댔다가 어색한 듯 등을 뻗는다. 그녀는 포토타임 초반 큰 웃음기를 잠시 보였던 게 신경 쓰였는지 조금씩 미소를 가다듬는다.

유튜브로 뒤늦게 강의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보고 있던 나는, 몇 주 전 시를 쓰는 혜가 건넨 말이 떠올랐다. 어느 날 오후, 혜에게 카톡으로 열무국수 사진을 보냈더랬다. 잠시 뒤 혜에게 답이 왔다. “살얼음 좋아요.” 보낸 사진이 너무 인스타그램 구도 같다는 생각만 했는데, 하얀 면을 두른 얼음의 형태를 집어준 혜의 눈맛을 뒤늦게 알아챘다.

“한 여자의 눈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총명한 눈, 방금 살얼음이 녹은 것처럼 젖어 있던 눈, 누구도 차마 오래 맞받아 바라볼 수 없었던 눈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 『바람이 분다, 가라』中

●

나는 예전부터 강의 얼굴에 관심이 있었다. 강을 이미지로 담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황순원문학상 수상작품집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에 실린 강의 사진을 좋아한다. 사진기자 권혁재가 찍었다(권혁재가 찍은 강의 사진들은 좋다). 카메라를 쳐다보는 강의 두 눈엔 눈물이 조용히 고여 있다. 입을 가린 두 손을 향해 녹은 눈(雪)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하다. 검은자위를 아슬아슬하게 가린 앞머리가 눈물에 스며든 체온을 가늠한다. 왼쪽 코에 드리운 그늘, 왼쪽 눈매를 살짝 가린 어둠이 깨진 유리조각 모양의 밝기를 만들어낸다.

●

사회자의 말이 이어진다. 행사 진행원이 강에게 차를 건네준다. 뚜껑이 잘 열리지 않는다. 그냥 둘 줄 알았다. 이내 강은 겨울날씨처럼 주무르던 양손으로 사근사근하게 뚜껑을 연다.

강의 얼굴은 빛과 친해 보이진 않는다. 오랜만에 외출해 지하철역 긴 계단을 헛디딜 것 같은 기운의 얼굴이다. 그녀는 여름보다 겨울이다. 하루는 강이 여덟 살 난 아이에게 인디언 식으로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 했다. 아이는 강을 “펄펄 내리는 눈의 슬픔”(「피 흐르는 눈2」)이라고 불렀다. 존 버거가 친구 마르셀의 굳은 살갓 밑에 감춰진 예민함을 보고, 이젠 쓰이지 않는 옛 단어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채식주의자』에 실린 이영균의 사진에서 한강은 두 손을 깎지 낀 채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다. 강 하면 떠오르는 특유의 포즈다. 강은 말할 때 생각보다 손을 많이 쓴다. 쓴다는 표현보다 그려본다는 표현과 잘 어울리는 그녀의 글들을 상기하자면, 손동작의 활기는 가녀린 새벽 목소리와 뒤섞인 채 아련한 단어와 새 질문들을 붙잡는다.

●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엔 강의 캐리커처가 실려 있다. 이제하 작가의 솜씨다. 캐리커처는 웬지 모르게 소설집에 수록된 야간열차 의 선주를 닮았다. 작품을 읽고 나서 임순례 감독의 초기작들이 떠올랐는데, 선주는 살얼음을 가슴에 부둥켜안고 사는 젊은이들 가운데서 제법 “어른스러운 구석”을 보이는 여성이다. 이제하는 강의 오른쪽 눈을 독특하게 표현했다. 그는 검은자위를 그려 넣는 대신, 흰 눈에다 학창 시절 반장선거 때 자주 보던 빗금 네 개(////)를 그었다. 수줍게 그려진 강의 인중과 얇은 입술이 만나는데, 그 모양이 작은 옷걸이를 닮았다.

강의 첫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에선 이제하 대신 화가 김선두가 캐리커처를 그렸다. 이후 강의 동생이 그린 캐리커처가 표지로 실린 판본이 나오긴 했지만, 김선두의 작품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 아마 사진과 그림을 통틀어 김선두의 캐리커처는 강의 치아가 잘 보이는 몇 안 되는 작품일 것이다. 아울러 살짝 끝이 말린 머리카락, 단순한 선으로 그려진 어깨는 강이 살면서 비슷하게 유지해온 머리카락의 길이를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이제하와 김선두의 작품을 나란히 보면, 강은 마치 선주처럼 “방금까지 눈웃음을 웃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굴러 떨어”지는 묘한 얼굴을 지녔다.

●

2010년, 개념미술가 제니퍼 델튼은 <미술가는 어떻게 생겼나>라는 작품을 전시했다. 델튼은 『뉴요커』 3년 치(1999~2001)를 훑으면서 잡지에 수록된 미술가, 음악가, 디자이너, 문필가, 배우, 영화감독, 건축가의 사진을 모두 추려내 분야, 젠더, 이미지 속 묘사 스타일대로 분류했다. 그녀의 감각에 따르면, 사진 속

인물들은 천재부터 편업결 같은 범위로 나뉘었다. 온라인으로 감상했기에 작품을 보는 데 제약이 있었지만, 아마 덜튼은 수전 손택이 언급한 예술가적 용모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² “마음 내키는 대로 음식을 먹는 행위가 조잡한 행위가 됐고, 병을 앓고 있는 듯한 모습이 매력적인 모습이 됐다.”(『은유로서의 질병』)

강의 소설엔 새벽 두세 시쯤 케이블 채널에서 틀어주던 옛 한국영화를 볼 때 느껴지는 매캐한 기운이 있다.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같은 제목이 낯설지 않던 시절의 영화를 볼 때마다 머릿속이 맵고 싸한 느낌을 받곤 하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다. 그녀의 작품을 읽으면 아파야 할 것 같고, 그 마음속 다짐이 금세 어려질 것을 알기 때문에 속상해하다가 정말 아파버리는 날들을 맞이하곤 한다. 강의 소설 속에는 나보다 이런 장면에 숙달된 사람들이 등장하고, 대체로 강처럼 야위었다. 강과 강의 인물들은 살갓과 머리카락으로 뒤덮인 얼굴과 해골이 겹쳐진 얼굴들을 한 채, 글자에다 통각의 기운과 기억, 기록들을 심어놓는다. 강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최후의 얼굴”³로 기념한다. *vanitas*.

●

“어느 곳에서건 사진은 찍지 않았다. 풍경들은 오직 내 눈동자 속에만 기록되었다.”

—『희랍어 시간』中

“안구가 뚫린 텅 빈 두 눈이
안구가 뚫린 텅 빈 두 눈을 들여다본다
(우린 마주 볼 눈이 없는걸.)
(괜찮아, 이렇게 좀더 있자.)

—「해부극장」中

포토타임을 끝낸 강이 의자에 앉는다. 그녀가 앉은 의자와 마이크 사이가 멀어 보인다. 강이 마이크를 잡는다. 다시 카메라 세례가 쏟아진다. 강을 향해 엑스레이를 찍는 것 같다. 강이 의자를 테이블 쪽으로 당긴다. 살짝 웃더니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한다. 여장을 다 꾸러놓은 사람처럼,⁴ 한 발자국만 떼어놓으면 떠날 사람처럼.

“제 목소리가 작아서, 찍으시면 안 들리지 않을까요?”

1 본문에서 저자가 표시되지 않은 책명의 경우(수전 손택 제외), 모두 한강의 작품임을 밝힌다.

2 개념미술가 제니퍼 딜튼의 작업은 세라 손튼의 『예술가의 뒷모습』(배수희 옮김, 세미콜론, 2016)을 참고했다.

3 “최후의 얼굴”은 『에도하는 미술』(마음산책, 2014, 76쪽)에서 저자인 미술평론가 박영택이 화가 김명숙의 그림을 두고 한 표현이다. 참고로 한강은 『바람이 분다, 가라』에서 작품 속 주인공 서인주의 그림을 김명숙의 작업에서 착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4 “여장을 다~사람처럼”은 『여수의 사랑』에 실린 단편 「야간열차」(175쪽)의 글귀를 참고했다.